



출판



PAJU  
BOOKSORI

둥둥둥둥 파주에 울려 퍼진 북(book) 소리

## 제1회 파주북소리2011 성료

아시아 최대 규모의 책 축제인 '파주북소리 2011(PAJU BOOKSORI 2011)' 이 지난 10월 1일부터 9일까지 파주출판도시에서 펼쳐졌다. '책 읽는 사람, 책 쓰는 사람, 책 만드는 사람이 함께하는 아시아 지식의 축제' 라는 가치 아래 펼쳐진 이번 축제에는 260여개 출판사와 300여개 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이 참여해 전시와 강연, 공연 등 136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올해 처음 열린 축제였지만 3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몰리는 등 그야말로 파주는 축제의 한마당이었다.

글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역대 모든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의 유품, 문학작품 초판본을 전시한 '노벨문학상 110주년 특별전', 아시아 40개국의 문자와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시아문자전'은 많은 관람객들의 주목을 끌었다. 역사, 출판, 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석학이 참여한 강연도 성황을 이뤘다. 고은 시인, 김병익 문학평론가,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 '석학이 들려주는 인문강좌'는 강연 후 강연자와 참가자들간 진지한 토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저자와의 대화, 창작 워크숍, 다양한 포럼과 세미나 외에도 할인 가격으로 책을 구매할 수 있는 '북마켓', 한국과 일본의 희귀 고서적을 한데 모은 '한일특별고서전', 고은 시인의 '시 퍼포먼스', 장재인과 강산에 등 유명 포크가수들이 대거 출연한 '파주 포크페스티벌'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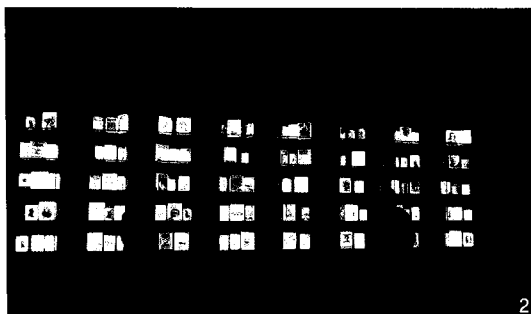
### 노벨문학상 110주년 특별전

노벨문학상 110주년 특별전에서는 1901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노벨문학상 전체 수상작가 107명의 삶과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전시는 초판본 책뿐만 아니라 작가들의 유품과 친필편지, 엽서 등 작가의 삶과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볼거리가 많았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1회 수상작가 ‘쉴리 프뤼돔’의 친필원고, ‘앙드레 지드’의 친필편지, ‘토마스 만’의 육성LP음반, ‘알베르 카뮈’의 초판본,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타자기 등 추정가 100억원 이상의 전시품 1000여점이 전시돼 화제를 모았다.

전시장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출신나라별로 전시됐는데, 프랑스를 필두로 영국 독일, 이태리 그리스, 기타 유럽 16개국, 아프리카 중동아프리카 아시아로 구분했다.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프랑스 시인 쉴리 프뤼돔으로 이후 앙리 베르그송, 앙드레 지드, 알베르 카뮈, 장 폴 사르트르 등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에 대한 설명과 관련도서가 전시되었다. 아시아 작가로는 라빈드라나드 타고르(인도, 1913년 수상), 가와바타 야스나리(일본, 1968년 수상), 패트릭 화이트(오스트레일리아, 1973년 수상), 오에 겐자부로(일본, 1999년 수상) 등 4명이었다.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오에 겐자부로는 도쿄대 불교학과 재학중 <죽은 자의 사치>로 데뷔했으며, 1958년 <사육>으로 아쿠다가와상을 수상했다. <만연 원년의 풋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오에 겐자부로는 1994년 12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행한 ‘애매한 일본과 나’라는 제목의 노벨문학상 수상소감 연설에서 “일본이 특히 아시아인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쟁중의 잔학행위를 책임져야 하며 위협스럽고 기괴한 국가의 출현을 막기위해 평화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책으로 신실크로드를 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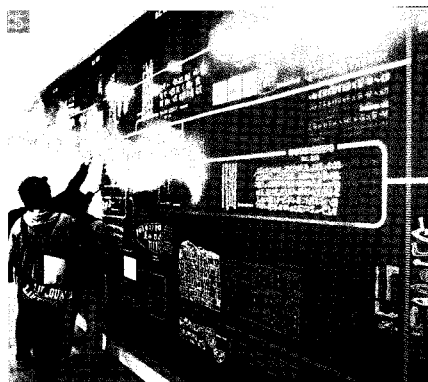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실크로드. ‘책으로 신실크로드를 엮다’전은 방대한 비단길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책과 사진에 대한 전시회다. 실크로드의 시작점인 ‘시안’, 농경문화와 유목문화의 교차로인 ‘둔황’, 세상의 끝에 다다른 것 같지만 사실 무한한 신세계를 품고 있는 투루판의 ‘화염산’ 등 실크로드의 모습을 책과 사진을 통해 엿볼 수 있게 했다.

### 아시아문자전

아시아 40여개 국가의 문자를 지역성, 글자꼴, 교육, 활용 등의 관점으로 구성한 전시다. 아시아 각국 글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확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 각국의 문자가 아시아 문명사에 끼친 영향에 대해 조명했다. 특히 캄보디아, 몽골,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 4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전시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 한일고서 특별전

동경고서조합과 보수동 고서점이 함께한 ‘한일고서 특별전’이 들녘출판사 1층에서 열렸다. 이번 고서전에서는 부산 보수동 책방골목의 ‘고서점’과 일본 ‘동경고서조합’의 고서 8000여권이 전시됐다. 보수동 책방골목의 고서점이 대한매일신보 원본, 1940년대 축음기용 SP음반, 근현대 교과서 등 희귀자료를 전시했다. 특히 조선의 문화와 문물을 기록한 역사서인 ‘계림래방기’가 최초로 공개되기도 했다. 또한 동경 진보초 거리의 서점들에서 온 디자인, 패션, 미술, 건축, 만화, 한국관련 고서적들도 전시됐다. Ⓞ



1. 유료전시회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은 노벨문학상 110주년 특별전
2. 노벨문학상 110주년 특별전에서 아름다운 LED 조명으로 107권의 책으로 연출한 LED 북아트터치
3. 책으로 신실크로드를 엮다 전시회 모습
4. 동경 간다고서점과 부산 보수동 고서점이 함께 한 ‘한일고서특별전’
5. 아시아문자전 모습